

# 갑골문에 나타난 商代 後期 祀典 체계에 대한 고찰: 周祭를 중심으로 \*

임 현 수 \*\*

## <목 차>

1. 서론
2. 董作賓의 분류법과 周祭의 발견
3. 祭祀와 占卜의 상관성
4. 周祭의 특징과 祀典 체계의 변화
5. 周祭 중심의 祀典 개혁에 담긴 함의
6. 결론

## 1. 서론

1899년 갑골문이 세상에 첫 모습을 드러낸 이후 종전까지 고대 문헌 자료에 의존했던 商代 문화에 관한 인식 수준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司馬遷의 《史記》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고대 문헌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주로 왕위 계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사에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갑골문은 商代 사회가 경험했던 삶의 다양한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문헌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종교적인 분야를 비롯해 상왕 조의 정치 상황, 주변 지역과의 전쟁 및 외교 관계, 기후 및 날씨, 천문 역법,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6479).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농업, 사냥, 질병 등 다양한 정보가 갑골문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갑골문을 이용하여 商代 문화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기까지는 갑골학자들의 지난한 노력이 수반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갑골문이란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로서 드러난 甲骨의 표면에 쓰인 문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갑골 대부분은 발굴 당시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무수한 파편으로 출토되었다.<sup>1)</sup> 온전한 갑골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조각난 파편들을 이용하여 본래의 원형을 복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호 관련성을 잃은 갑골 단편들의 존재는 갑골학 초기에 갑골문을 활용하여 商代 사회와 문화를 탐구하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골 자료 자체가 지닌 불리한 조건은 매 고비마다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서 극복되었다. 무엇보다 갑골문 글자 하나하나가 오늘날 통용되는 한자 가운데 어떤 것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갑골학의 주춧돌을 놓는 일과 비교되는 것으로 여기에 관련한 학자들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별도의 지면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갑골문은 單字 考釋을 넘어서 전체 의미를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자 고석에 이어 갑골문의 문법을 파악하고 이를 문장 단위에 적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도 많은 갑골학자들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갑골학자들의 이와 같은 연구는 商代 문화를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언어 해독의 방면에서 이룩된 성취가 곧바로 商代 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은 商代 문화 인식을 향한 두 번째 관문을 개방하는 열쇠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商代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흩어지고 맥락을 잃은 갑골 조각들의 더미에서 모종의 질서를 찾는 일이 필요하였다. 갑골문을 내용적으로 분류하고 거기서 유형을 찾는 일이야말로 그러한 질서를 확인할

1) 현재까지 발굴된 갑골 조각들의 정확한 수량은 확정되지 않았다. 10만여 편에서 16만여 편에 이르기까지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10만 편 이상의 갑골 조각이 발굴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것 같다. 王宇信·楊升男, 《甲骨學一百年》, 韓國 兪錫, 《갑골학 일백 년 1》, 서울: 소명출판사, 2011, 177-190쪽.

수 있는 가장 긴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분류 작업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분류는 겉으로 보기에 약간 복잡하더라도 주어진 사실들을 어느 정도 관찰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쉽게 수궁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창기 갑골학자들은 갑골문의 내용을 제사, 농업, 수렵, 정벌, 기상, 꿈, 재해 등과 같이 갑골문을 읽으면 누구라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를 진행한 바 있다.<sup>2)</sup> 이런 방법을 적용한 분류는 각각의 상위 항목 하에서 소분류 작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가령 祭祀 항목 내에서 그 종류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sup>3)</sup>

그러나 이런 식의 분류법이 지닌 한계는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 商代 문화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들을 대상으로 감각적 분류를 진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록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외부 사실들의 배후에서 질서를 규정하는 제2의 요인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선 분류법을 1차원적 분류라 한다면, 이를 넘어선 심층적 분류를 2차원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초기 갑골학자들 가운데 갑골문을 심층적으로 분류함으로써 商代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던 대표인물로서 董作賓(1895-1963)을 꼽는다. 본고가 주목하는 商代 後期 祀典 체계 변화의 중심에 자리한 周祭는 董作賓이 갑골문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상이다. 周祭는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商代 後期 祀典 체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상제사이다. 周祭는 독특한 체제와 특징으로 인해 그 이전의 조상제사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商代 後期 祀典 체계는 이와 같은 周祭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변화를 겪는다.

본고는 周祭의 체제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商代 後期 祀典 체계의 변화에 담긴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연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2) 초창기 대표적인 갑골학자들이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 작업을 실행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위의 책, 213-244쪽 참고.

3) 예를 들어 陳夢家是 商代 제사의 종류를 7가지 유형 총 37종으로 나눈 바 있다. 陳夢家, <古文字中之商周祭祀>, 《燕京學報》 第十九期, 1936, 101-113쪽.

다면 商代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제2장은 앞서 언급한 董作賓의 심층적 분류의 내용과 의의를 간단히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분류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周祭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 글에서 董作賓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周祭를 발견한 당사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周祭는 그의 특별한 분류법에 따라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周祭 연구는 商代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제3장은 商代 後期 周祭가 성립되기 이전까지 실행되었던 제사의 정황을 소개한다. 여기서 周祭 이전의 제사는 占卜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이 개진될 것이다. 제4장은 周祭의 체제와 특징을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商代 後期 祀典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제5장은 본고의 핵심 부분으로 周祭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祀典 개혁에 담긴 의미를 밝힐 것이다.

## 2. 董作賓의 분류법과 周祭의 발견

갑골문은 商代(기원전 17세기 ~ 11세기 경) 後期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盤庚이 오늘날 중국 河南省 安陽市 小屯村에 해당하는 殷 지역으로 천도를 단행한 이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된 자료로서 마지막 왕인 帝辛 시대까지 이어진다.<sup>4)</sup> 좀 더 엄격히 말하면 현재까지 발굴된 갑골문은 주로 武丁 이후의 기록물로서 帝辛까지 약 20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소산이다.<sup>5)</sup> 1899년 小屯村에서 처음으로 갑골문이 발견된 이후 대대적으로 벌어진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 출토된 갑골 편들의 상태는 대부분 원형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은 앞서

4) 盤庚 이후 마지막 왕 帝辛까지 왕들의 즉위 순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盤庚—小辛—小乙—武丁—祖庚—祖甲—廩辛—康丁—武乙—文丁—帝乙—帝辛

5) 王宇信·楊升男, 《甲骨學一百年》, 하영삼 옮김, 《갑골학 일백 년 2》, 서울: 소명출판사, 2011, 33쪽.

밝힌 바 있다. 王國維(1877-1927), 羅振玉(1866-1940) 등으로 대표되는 초창기 갑골학자들은 문자 및 문장 해독의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갑골문의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商代 문화를 고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과 같은 초기 세대에 속한 董作賓의 분류법이 남다르다고 판단하는 까닭은 그가 보여준 통찰력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 뒤에 숨어 있는 질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董作賓이 실행한 심층적 분류의 첫 번째 성과는 갑골문의 시기를 구분한 것이었다. 董作賓은 200여년에 걸쳐 기록된 갑골문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각 시기는 갑골문이 기록된 왕들의 시대와 결부되었다.<sup>6)</sup> 결과물만 놓고 보았을 때 그의 시기 구분론은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갑골문은 시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수만 편의 갑골 조각 표면에 새겨진 문자도 대동소이해서 누구라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정도의 변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董作賓은 갑골문의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sup>7)</sup> 간단히 말해 이 10가지 기준은 특정 甲骨文 위에 기록된 갑골문이 어떤 시기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조건이다. 물론 하나의 甲骨文이 특정 시기에 소속되기 위해서 이 10가

6) 동작빈이 구분한 다섯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제1기: 武丁 및 그 이전(盤庚, 小辛, 小乙)
- 제2기: 祖庚, 祖甲
- 제3기: 廩辛, 康丁
- 제4기: 武乙, 文丁
- 제5기: 帝乙, 帝辛

董作賓에 따르면 殷墟 갑골은 武丁 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盤庚, 小辛, 小乙 시기의 갑골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기에 포함시킨다. 董作賓, 《甲骨學六十年》, 이형구 옮김, 《갑골학 60년》, 서울: 민음사, 1993, 115쪽.

7) 董作賓이 갑골문을 10가지 조건에 입각하여 5시기로 구분하는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논문은 <甲骨文斷代研究例>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10가지 조건은 世系, 稱謂, 貞人, 坑位, 方國, 人物, 事類, 文法, 字形, 書體이다. 董作賓, <甲骨文斷代研究例>,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外編第一種: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上冊, 1933, 323-424쪽.

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10개의 기준은 甲骨文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갑골 조각 표면에 적힌 갑골문에 貞人(점복 전문가)의 이름은 없는 데 稱謂(제사 대상자를 부르는 칭호) 기록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稱謂 기록은 없지만 貞人의 이름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또는 貞人의 이름도 없고, 稱謂 기록도 없지만 주변 方國의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 貞人이나 稱謂 기록, 方國의 명칭도 부재한 상황에서 갑골 조각이 발굴된 위치, 즉 坑位에 대한 정보는 확실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갑골 조각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10개의 기준 가운데 적용 가능한 것을 선택하여 특정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董作賓이 고안한 분류법이었다. 그의 분류법은 눈으로 직접 식별 불가능한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다양한 조건을 입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의 성과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董作賓의 시기 구분론이 지닌 가장 커다란 의의는 갑골문을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그의 시기 구분론이 나오기 전까지 수만 조각의 갑골은 횡적 지평 위에서 정태적 고찰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sup>8)</sup> 하지만 수많은 甲骨文들이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는 순간 학문적 관심사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동일한 항목에 묶여 유사한 비중으로 다루어졌던 갑골 조각들이 시기적으로 차별화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董作賓의 시기 구분론이 지닌 이와 같은 잠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商代 祀典 체제를 다루면서 실현된다. 董作賓은 갑골문에 담긴 정보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제사 관련 기록에 주목한다. 그는 갑골문에 매우 혼란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제사의 종류, 대상, 규모, 방법 등을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가 특별히 염두에 둔 점은 商代 後期 祀典 체계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董作賓이 商代 제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8) 《갑골학 일백 년 2》, 68쪽.

그가 商代 後期 祀典 체계의 유형을 舊派와 新派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시간의 흐름이 분류의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sup>9)</sup> 시간을 기준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갑골문의 제사 기록을 분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본고가 董作賓의 분석을 심층적 분류법에 속한 것으로 평가하는 배경에는 감각적 사실로부터 그 배후에 감추어진 은폐된 질서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의 심층적 분류로 인하여 商代 문화에 대한 인식은 더 깊은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董作賓이 제기한 신구파설은 商代 後期 祀典 체계가 단일하지 않았으며, 옛 것을 고수하려는 입장과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입장 사이의 대립과 충돌로 인하여 상당한 변곡점들로 구성되었음을 암시한다. 商代 後期 祀典 체계에서 신파와 구파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董作賓이 五種祭祀로 지칭했던 새로운 禮制의 확립이었다.<sup>10)</sup> 본고에서 周祭로 명칭을 달리해서 부르고 있

9) 董作賓은 《殷曆譜》에서 新舊 兩派說을 최초로 제출하였다. 그가 新派와 舊派의 차이에 따라 분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는 祀典뿐만 아니라, 역법, 문자, 점복의 소재(卜事)들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祀典을 포함하여 역법, 문자, 점복의 소재 등의 영역도 신파와 구파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중 董作賓이 가장 비중 있게 취급했던 것은 祀典이다. 董作賓이 구획한 구파와 신파에 해당하는 王世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구파: 武丁, 祖庚, 文武丁

신파: 祖甲, 廩辛, 康丁, 武乙, 帝乙, 帝辛

위에서 각 파에 해당하는 왕들을 즉위 순서대로 열거하면 武丁, 祖庚(구파)—祖甲, 廩辛, 康丁, 武乙(신파)—文武丁(구파)—帝乙, 帝辛(신파)으로 배열되는데, 이를 통해 구파와 신파의 교체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董作賓에 따르면 구파는 古法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신파는 새로운 禮制를 도입함으로써 제도를 개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董作賓, 《殷曆譜 上編 卷一》,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45, 2下-3上. 참고로 董作賓은 같은 책에서 武乙을 文武丁이 속한 구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董作賓, 《殷曆譜 上編 卷三》, 14上.

10) 祀典에 대한 신파와 구파의 차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파는 조상계보 상에서 上甲 이전 세대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바쳤지만, 신파는 이들에 대한 제사를 중지하였다. 대신 上甲 이후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바쳤다. 구파는 上甲 이하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小宗을 제외한 大宗 계열에게만 한정하였다. 이와 달리 신파는 大宗과 小宗의 제한 없이 모두에게 제사를 지냈다. 구파는 왕의 배우자에 대해 제사 지낼 때 大宗의 妻로 제한하였으며, 그것도 五代를 넘은 조상에게는 제사를 바치지 않았다. 신파는 세대 수에 상관없이 大宗의 배우자 모두에게 제사를 지냈다. 구파는 黃尹(4기 갑골문에서는 伊尹이라 지칭), 咸戊 등과 같은 공신들에게 제사를 바쳤으나 신파는 이를 폐지하였다. 구파는 河, 岳,

는 이 오종제사는 彡, 翬, 祭, 飪, 翫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를 미리 致祭 대상으로 정해진 조상들에게 일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바친 것을 가리킨다. 다섯 제사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지만<sup>11)</sup>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가지 계통의 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董作賓이 오종제사라 지칭할 때는 하나의 체계를 갖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를 통칭하는 것은 아니다. 오종제사는 갑골문이 현시하는 사실들의 더미 속에서 심층적 분류 작업을 통해 건져 올린 미지의 세계였다. 오종제사의 발견과 함께 商代 後期 祀典 체계의 변천 및 거기에 담긴 의미를 조망하고, 商代 문화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3. 祭祀와 占卜의 상관성

周祭의 성립과 더불어 商代 後期 祀典 체계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암시한 바 있다. 이러한 祀典 체계의 변화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실적 진술을 충분히 풀어내는 일이 우선이다.

갑골문이 점복의 始末을 기록한 자료인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점복의

---

土 등을 중시했지만 신과는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구과의 祀典은 산만하고 번잡하여 조직적인 계통을 확인할 수 없지만, 신과는 하나의 분명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신과 사건의 중심에는 五種祭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종제사는 彡, 翬, 祭, 飪(啗),

翫 다섯 가지 제사로 구성되었으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운영되었다. 董作賓, 《殷曆譜 上編 卷一》, 3上; 董作賓, 《殷曆譜 上編 卷三》, 14上.

11) 동작빈에 따르면 彡 제사는 북을 이용하며, 翬 제사는 춤을 이용하며, 祭 제사는 고기를,

飪 제사는 곡물을 이용하며, 翫 제사는 맨 마지막에 다른 제사들과 연합하여 올리는 것을 말한다. 董作賓, 《殷曆譜 上編 卷三》, 14上-15下.

내용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다. 그만큼 商代가 제사를 중시한 사회라는 점을 입증해줄 뿐만 아니라 商代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제사 분야를 경유하는 과정이 필수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갑골문에 반영된 제사 관련 기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商代는 제사를 지내기 전 점복을 통해 실행 여부를 묻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사회였다. 商代 점복 전문가들이 제사 점복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사안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다. 제사를 바치는 대상, 제사를 올리는 시기, 제사를 지내는 방법, 제사에서 희생될 제물 등에 관하여 일일이 점을 통해 알아본 후 실행하는 것이 商代 제사의 일반적 절차였다.

乙卯卜, 殷, 貞, 禦婦好于父乙, 翌羊又豕, 卣十牢. 《甲骨文合集》 271(1기)  
 을묘일에卜을 하고 殷이 점을 쳤다. 婦好를 위하여 재앙을 없애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父乙에게 양과 돼지를 갈라 바치고, 우리에서 키운 10마리의 양을 바치기로 서약해도 될까요?<sup>12)</sup>

甲午卜, 貞, 翌乙未出于祖乙羌十又五, 卯牢又一牛. 五月. 《合集》 324(1기)  
 갑오일에卜을 하고 점을 쳤다. 다음날 을미일에 祖乙께 羌人 15명을 바치고, 우리 안에서 기른 양과 소 한 마리를 갈라서 바칠까요? 5월.

앞의 두 인용문을 보면 제사 대상은 각각 父乙과 祖乙이라는 조상신이다. 점복의 내용은 이들에게 특정한 종류의 제물을 특정한 날에 특정한 수량으로 특정한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받아들여질지에 대하여 묻는 것이다. 여기서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가 인간의 일방적 의지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흥미롭다. 인간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는 신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점복은 이처럼 인간이 신

12) 갑골문에서 '禦' 字는 '賓', '酒', '禱' 등과 같이 祭祀動詞에 속한다. 이 글자는 일반적으로 爲動用法로 활용된다. 따라서 위 문장에서 '禦' 字는 목적어인 婦好를 '위해서' 재앙을 제거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2, 6-7쪽.

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였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점복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은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긴장을 요하는 일이기도 하다.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제반 규정이 미리 선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과 비교할 때 점복을 전제하고 수행되는 제사의 번거로움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게다가 제사의 종류도 많고<sup>13)</sup>, 제사 대상도 많을 경우<sup>14)</sup> 제사를 바칠 때마다 일일이 따져 물어야 하는 점복 업무의 빈도는 증가하기 마련이고, 점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도 복잡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卜兆에 나타난 일련의 현상을 해석함으로써 제사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인 점복 전문가들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商代 점복의 중심에는 왕을 필두로 다양한 점복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특히 卜兆 해석의 책임을 맡은 왕에게 드리워진 책임과 부담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5)</sup> 董作賓이 갑골문에

13) 常玉芝는 갑골문에 보이는 商代 後期 祭名에 관심을 보였던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바 있다. 그녀의 도움으로 각 연구자들이 집계한 祭名의 가지 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陳夢家 39종(원래는 37종인데 오기한 것으로 보임), 島邦男 264종, 孫叔微 61종, 趙誠 134종, 徐中舒 36종, 李立新 211종. 이를 보면 36종에서 264종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常玉芝는 李立新的 연구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성과이며, 그가 검토한 갑골문과 金文 자료는 다른 학자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가 낸 통계가 가장 완전하다고 평가한다. 常玉芝, 《商代宗教祭祀》,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10, 420-423쪽.

14) 일반적으로 商王朝에서 숭배되었던 神들의 범주는 갑골문을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가 至高神 帝, 둘째는 自然神, 셋째는 祖上神이다. 王宇信·楊升男, 《甲骨學一百年》, 하영삼 옮김, 《갑골학 일백 년 5》, 서울: 소명출판사, 2011, 17-52쪽. 常玉芝, 앞의 책에서도 3가지 분류를 채택한다. 키틀리(David N. Keightley)는 6가지 범주로 나눈다. 첫째는 지고신(High God) 帝, 둘째는 河, 嶽, 日 등의 자연신, 셋째는 夔, 王亥 등의 先公, 넷째는 왕조 성립 이전의 조상들로서 上甲에서 示癸까지 여섯 명이 여기에 해당, 다섯째는 大乙(成湯)에서 시작되는 왕조 성립 이후의 조상들, 여섯째는 여성 조상들로서 大宗 계열 왕들의 배우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키틀리는 자연신, 선공, 왕조 이전 조상들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공유한다고 보고 이들을 함께 묶어 高位神(High Powers)으로 칭하기도 한다. 갑골문에는 자연신과 선공 모두에게 高祖라는 칭호를 붙이는가 하면, 이들과 왕조 성립 이전의 조상신들이 동일 수준의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키틀리는 자연신과 조상신의 경계가 흐릿한 현상에 주목한다. 그러나 앞서 세 가지 범주를 강조한 입장은 자연신과 조상신을 엄격히 구별하는 경향이 짙다. David N. Keightley, "The Making of the Ancestors: Late Shang Religion and Its Legacy." In John Lagerwey, ed., *Religion and Chinese Society* Vol. 1.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2004, pp.5-7.

서 五種祭祀를 발견하고 祀典 체계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董作賓이 新舊 兩派說을 제기하고 商代 後期 祀典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린 후 이러한 흐름의 핵심에 자리한 五種祭祀, 즉 周祭는<sup>16)</sup> 이 분야 연구의 이정표가 되었다. 물론 董作賓의 학설이 그 누구의 비판도 헤쳐 나갈 정도로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가령 新舊 兩派說이 불완전한 논거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sup>17)</sup> 또한 周祭에 대한 그의 연구도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董作賓의 뒤를 이어 周祭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좀 더 세련되고 완벽한 논리를 다듬는데 주력하였다.<sup>18)</sup> 이처럼 董作賓의 연구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을 속속 드러냈던 것이다. 하지만 周祭가 商代 後期 祀典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명제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新舊派說의 설득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商代 後期 특정 시점에서 성립한 周祭 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완

15) 董作賓은 제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도 많을 때 점복의 전 과정을 통솔할 책임을 짊어진 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지 대변한 바 있다. 董作賓, <爲書道全集詳論卜辭時期之區分>, 宋鎮豪, 段志洪 主編, 《甲骨文獻集成》 第十五冊, 四川大學出版社, 2001, 335쪽.

16) 본고는 앞으로 五種祭祀 대신 周祭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周祭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陳夢家였다. 그가 周祭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는 다섯 가지 제사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데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北京: 科學出版社, 1956, 386-392쪽. 常玉芝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에 주목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녀가 五種祭祀라는 말 대신 周祭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다섯 가지 제사라고 해서 모두 周祭의 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王세에 어떤 조상신에게 다섯 가지 제사를 致祭했지만 당대 진행되고 있는 周祭의 계통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常玉芝, 《商代周祭制度》,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6쪽, 305쪽.

17) 新舊 兩派說이 비판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은 董作賓의 시기 구분론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董作賓이 4기에 귀속시킨 文武丁 시기 복사가 1기 武丁 시기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자, 新舊 兩派說의 주요 근거가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즉 新舊 兩派說에 따르면 武丁과 祖庚으로 대표되는 구파는 祖甲, 廩辛, 康丁의 신파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데, 文武丁 시기에 들어와 다시 구파가 복원된다. 文武丁 시기 복사가 1기 복사에 속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당연히 新舊 兩派說은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갑골학 일백 년 2》, 160-161쪽.

18) 董作賓의 영향을 받아 周祭 연구에 공헌한 대표적 학자는 다음과 같다. 陳夢家, 앞의 책, 11장; 島邦男, 《殷墟卜辭研究》, 弘前: 中國學研究會, 1958; 許進雄, 《殷卜辭中五種祭祀的研究》,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院, 1968; 常玉芝, 앞의 책(1987).

성도를 높여가며 祀典 개혁을 주도하였다는 입장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였다.

#### 4. 周祭의 특징과 祀典 체계의 변화

그렇다면 周祭는 어떤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었기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일까. 먼저 周祭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商王祖의 국가제사로서 鬯, 祭, 飨, 絜, 𩇛 다섯 가지 제사를 조상들에게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바치는 것으로, 각각의 제사는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적인 제사 체계를 구성하며, 예정된 모든 절차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갑골문에서 하나의 통합 운영 체계로서 周祭가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는 2기 祖甲 때이며<sup>19)</sup>, 5기 帝乙과 帝辛 시기에 와서 더욱 완성된 체제를 갖춘다. 만약 가장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한 周祭의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5기 갑골문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周祭를 중심으로 진행된 祀典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사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周祭에서 제사를 받는 대상은 조상으로 제한된다. 자연신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신들 이외에도, 원래 조상신으로 취급되었지만 자연신과 그 경계가 모호했던 존재들도<sup>20)</sup> 周祭에서 배제된다. 周祭

19) 키틀리는 董作賓의 新舊 兩派說에 동의하지 않지만, 祖甲이 실시한 周祭를 문화개혁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祖甲이 문화개혁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商王祖가 처한 정치적인 상황이 가로 놓여 있다. 武丁이 통치하던 시기는 주변 方國과 전쟁을 통해 국가적인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렸던 시기였지만, 祖庚 때는 전쟁에서 잦은 패배로 인해 동맹 관계가 붕괴하는 등 왕조의 영향력이 축소된다. 이와 더불어 商王이 지닌 권력도 위기를 맞는다. 祖庚의 뒤를 이어 즉위한 祖甲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신의 지배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祀典을 비롯한 제반 제도를 개혁한다. David N. Keightley, *op.cit.*, p.30.

20) 陳夢家是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조상신들을 40여명으로 추정하고, 세 가지 계열로 분류한 바 있다. 첫 번째 계열은 夔, 王亥, 王兕, 王恆처럼 高祖라 칭해지는 조상들이고, 두 번째 계열은 上甲, 報乙, 報丙, 報丁, 示壬, 示癸로서 湯王 이전의 조상들을 말하며, 세 번째 계

의 致祭 대상으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조상은 上甲이다. 그리하여 上甲 이하의 왕실 조상들이 周祭의 주요 대상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제사 대상의 축소는 왕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여되는 각종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은 致祭 대상들이 현존하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세대 상으로 가까운 조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조상신으로 인정되지만 세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자연신의 풍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조상신들은 적극적으로 배제되고 정체성이 분명한 조상신들만 周祭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이러한 판단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그런데 周祭의 대상에 포함된 조상들의 경우 거기서 배제된 신들과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周祭를 받는 조상들은 上甲 이하 모두 그들을 칭하는 廟號에 天干이 포함되어 있음에 반해 周祭를 받지 않는 신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廟號에 天干이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周祭 대상인지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더 흥미로운 사실은 廟號 天干이 조상 제사 일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商代는 갑골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60干支를 사용하여 날짜를 표기하는 사회였다. 앞서 조상의 廟號 天干이 祭日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언급은 廟號 天干이 곧 祭日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상들의 묘호가 仲丁, 祖乙, 雍己일 경우 그들의 제사일은 丁日, 乙日, 己일로 정해진다. 여기서 구체적인 제사 날짜는 天干을 포함하여 地支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廟號 天干이 祭日을 결정하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다음에 언급하는 것처럼 周祭가 지닌 가장 인상적인 특징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周祭 연구자들은 갑골문을 분석한 결과 周祭의 祭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미리 정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周祭의 祭日은 점복 여부와 상관

열은 大乙(成湯)부터 文丁까지의 조상신들을 말한다. 陳夢家, 앞의 논문, 100-101쪽. 이 중 첫 번째 계열의 조상들이 周祭에서 제외된다.

없이 실행하기 이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이는 어떤 날 어떤 조상에게 무슨 제사를 지낼지가 60干支를 이용하여 미리 지정되었다는 말이다.<sup>21)</sup> 원래 周祭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제사 일정이 점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周祭는 모든 제사 일정을 事前에 미리 결정해 놓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부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갑골문에 기록된 내용으로 商代 周祭 일정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甲戌翌上甲, 乙亥翌上乙, 丙子翌上丙, (丁丑翌)上丁, 壬午翌示壬, 癸未翌示癸, (乙酉翌大乙), (丁亥)翌大丁, 甲午翌(大甲), (丙申翌上丙), (庚子)翌大庚<sup>22)</sup> 《合

21) 본문에서 祭日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 문제는 이미 주요 저작에서 해명된 바 있고, 이를 소개하는 것은 상당한 지면을 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를 간단히 제시하는 데 만족한다. 周祭의 祭日은 제사를 받는 조상들을 다섯 제사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정해진다. 각 조상들은 세대와 즉위 순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며, 왕은 배우자 보다 앞서서 제사를 받는 원칙이 있다. 翌, 祭, 飠, 烝, 彡의 다섯 제사는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祭, 飠, 烝 세 제사는 서로 연합 중첩되어 실행되었다. 다시 말해 이 세 제사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었다. 각 제사가 실행되기 전 맨 앞 旬에는 工典 제사를 배치하였다. 그러므로 한 번의 주제에 총 3번의 工典 제사가 포함된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常玉芝의 설명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그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편의상 그를 따른다. 常玉芝는 5기 帝乙과 帝辛 시기에 실행되었던 周祭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1명의 조상들이 致祭되었으며, 이들을 세대 순, 즉위 순,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廟號 天干에 따라 각 旬에 배치하면 총 10旬이 소요된다고 계산하였다. 단순히 계산하면 위의 51명의 조상들에게 다섯 제사를 모두 거행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은 30旬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각 제사를 거행하기 전 1旬을 工典 제사를 거행하는 데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총 30旬 외에 별도의 3旬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합 중첩하여 거행하는 祭, 飠, 烝 세 제사는 총 12旬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결국 工典 제사에 필요한 1旬을 더해서 계산하면 각각의 제사를 거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翌 제사 11旬, 祭, 飠, 烝 연합 중첩 제사 13旬, 彡 제사 11旬으로 총 35旬이다. 그런데 常玉芝는 여기다 1旬을 더 보태어 총 36旬의 기간이 周祭를 지내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이라 결론을 내린다. 그는 마지막 제사인 彡 제사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의 周祭가 시작되기 전 1旬의 空旬이 있음을 발견하다. 空旬은 아무런 제사도 배정되지 않은 비어 있는 시간이다. 36旬의 기간은 1 태양년에 가깝다. 常玉芝는 周祭의 주기에는 36旬 이외에 37旬도 있다고 한다. 37旬 주기는 36旬에 空旬 1旬을 더한 것으로, 周祭의 주기를 태양년의 일수와 맞추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설명한다. 常玉芝 이외에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려면 《갑골학 일백 년 5》, 67-119쪽; 常玉芝, 앞의 책(1987), 139-216쪽.

22) 위 인용문의 괄호 속 문자는 원래 甲骨片에는 脫字 상태이지만, 周祭의 규칙에 따라 추정 보충해 넣은 것이다. 董作賓은 이 자료를 祀典備忘錄으로 칭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商代

集》 35406(5기)

갑술일 상갑 翬 제사, 을해일 보을 翬 제사, 병자일 보병 翬 제사, (정축일) 보정 翬 제사, 임오일 시임 翬 제사, 계미일 시계 翬 제사, (을유일 대을 翬 제사), (정해일) 대정 翬 제사, 갑오일 (대갑) 翬 제사, (병신일 북병 翬 제사), (경자일) 대경 翬 제사

위의 자료는 갑술일을 시작으로 翬 제사를 받는 조상들의 일정을 上甲부터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周祭는 더 이상 점복을 거행하지 않고서도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일정에 따라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周祭를 지내기 전에 종전의 관행대로 점복이 실행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점을 칠 필요가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점을 쳤다는 사실에서 실체는 없고 형식만 남은 과거의 제도를 관성의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분위기를 감지한다.

[1] 癸未王卜, 貞, 𠄎<sup>23</sup>日, 自上甲至于多毓衣, 亡咎自猷. 在四月 佳王二祀. 《合集》 37836(5기)

계미일에 왕이 卜을 하고 점을 쳤다. 上甲 및 그 이하 조상들께 𠄎<sup>23</sup> 제사와 彡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데 화가 없을까요? 왕 즉위 2년 4월.<sup>24)</sup>

[2] 壬申卜, 貞, 王賓示壬<sup>25</sup>日, 無尤. 《合集》 35472(5기)

임신일에 卜을 하고 점을 쳤다. 왕이 示壬을 모시고 <sup>25</sup>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데 탈이 없을까요?

는 전체 周祭 일정을 기록한 책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董作賓, 앞의 논문(2001), 335쪽; 張秉權, <殷代的祭祀與巫術>, 宋鎮豪, 段志洪 主編, 《甲骨文獻集成》 第三十冊, 四川大學出版社, 2001, 373上.

23) 이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술을 이용한 제사, 祭名, 희생의 처리법 등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어느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기보다 잠시 𠄎 제사로만 표기한다. 松丸道雄, 高嶋謙一 編, 《甲骨文字字釋綜覽》,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93, 404 쪽.

24) 이 인용문에서 毓은 商代의 先公과 先王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多毓이란 많은 조상신을 뜻한다. 衣는 여러 제사를 동시에 지낼 때 사용하는 용어로 合祭를 뜻한다. 𠄎 제사와 彡 제사를 함께 거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衣 字를 첨가한 것이다. 위의 책, 250쪽, 398쪽.

[3] 辛卯卜, 貞, 王賓武丁爽妣辛翌日, 無尤. 《合集》 36267(5기)

신묘일에 卜을 하고 점을 쳤다. 왕이 武丁의 아내인 妣辛을 모시고 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데 탈이 없을까요?

[4] 丙子卜, 行, 貞, 翌丁丑祭于大丁, 無咎. 《合集》 22767(2기)

병자일에 卜을 하고 行이 점을 쳤다. 다음날 정축일에 大丁에게 祭 제사를 지내도 화가 없겠습니까?

위의 인용문들은 2기와 5기에 실시된 周祭 점복 자료들이다. [1]은 한 旬의 맨 마지막 날인 癸日에 다음 旬부터 시작될 祭 제사를 上甲 이하 조상신들에게 두루 지내는 것에 대하여 점을 친 것이다. [2]와 [3]은 제사 당일 점을 쳤지만, [4]는 제사 전날 점을 친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周祭는 이미 거행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점복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다음의 기록은 주제가 점복의 시행 없이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어 주목을 끈다.

癸丑王卜, 貞, 旬無咎. 王曰吉. 在正月. 甲寅祭小甲, 觐大甲. 《合集》 35529(5기)

계축일에 왕이 卜을 하고 점을 쳤다. 다음 열흘 동안 화가 없을까요? 왕이 卜兆를 읽고 말하기를 '길하다.' 정월. 갑인일에 小甲에게 祭 제사를 올리고, 大甲에게 觐 제사를 올렸다.

癸未王卜, 貞, 旬無咎. 在五月. 甲申 祭 小甲. 《합집》 35660(5기)

계미일에 왕이 卜을 하고 점을 쳤다. 다음 열흘 동안 화가 없을까요? 5월. 갑신일에 小甲에게 祭 제사를 드렸다.

위의 두 인용문을 보면 周祭가 직접적인 점복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자료는 새로운 旬이 시작되기 전날 癸日에 다음 旬의 禍福을 묻는 卜旬 복사이다. 물론 다음 旬의 화복을 점치는 이유 중에는 周祭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周祭를 직접 점복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周祭에 대한 언급은 복사 맨 뒤에 부기 형식으로 제시된다. 이는 점복의 대상이었던 해당 旬에 복사 맨 끝에 언급된 바와 같은 周祭가 실제 거행되었음을 첨부 기록한 것이다. 周祭의 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旬이 시작될 때 항상 첫 번째 致祭 대상이 되는 조상은 甲名の 조상이다. 그렇다면 복사 뒷부분에 표기된 周祭 기록은 새로운 旬이 시작될 때 어떤 甲名 조상이 무슨 周祭를 받았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周祭가 점복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록의 대상으로 바뀌는 현실은 오히려 周祭가 지닌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정을 미리 짜놓고 거행되는 周祭를 더 이상 점 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周祭가 지닌 특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하나는 제사 대상의 축소이고, 두 번째는 제사 일정의 선결 시행이었다. 이외에도 周祭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 특징을 보여준다. 앞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周祭가 출현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제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占問의 대상이었다. 제사를 받을 신들, 제사 일자, 제사의 장소, 희생의 종류, 희생의 수량, 희생의 처리법 등 제사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점복을 통해 결정되었다. 하지만 周祭 복사를 검토하면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앞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어떤 조상에게 특정 周祭를 거행하는 것이 괜찮을지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묻고 있을 따름이다. 제물의 종류나 수,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언급하는 周祭 복사는 단 한편도 없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다음의 추론을 끌어낼 수 있다. 周祭는 제사 일정을 미리 결정해 놓은 것처럼, 제사를 거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도 앞서 규정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점복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수시로 결정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제사 진행 규정을 미리 갖추어놓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규정은 모든 周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周祭 복사가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董作賓의 시대 구분론에서 제2기 祖甲 때 출현하여 5기 帝乙과 帝辛에 이르

러 거의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된 周祭는 商代 後期 祀典 변혁을 이끈 가장 커다란 동력이었다. 周祭가 祀典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체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부수적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合祭의 퇴조 현상은 언급할 가치가 크다. 키틀리에 따르면 合祭는 강력한 힘을 지닌 신들을 함께 묶어 제사 지냄으로써 인간이 원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고안된 제사이다.<sup>25)</sup> 合祭는 주로 商代 後期 중에서도 초기에 해당하는 1기와 2기에 성행되었는데 5기에 이르러 퇴조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5기에 들어와 合祭가 점차 사라지게 된 원인은 周祭가 표준적인 의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周祭는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마다 단 한명의 조상만을 致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合祭처럼 대규모 제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sup>26)</sup>

## 5. 周祭 중심의 祀典 개혁에 담긴 함의

이 글은 갑골문 발견 이후 商代 문화 인식이 확장되는 계기를 맞아 다양한 연구자들의 활약상을 언급하면서 출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董作賓의 심층적 분류법은 商代 문화 인식의 수준과 깊이를 더하는 데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남긴 시기 구분론과 周祭 연구는 商代 문화 인식의 이정표로서 현재까지

25) 合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갑골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貞，禦自唐大甲大丁祖乙，百羌百宰。三 二告。《合集》300(1기)

점을 쳤다. 100명의 羌人和 100마리의 우리에서 기른 양을 바쳐서 唐(湯王)과 大甲, 大丁, 祖乙에게 제앙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辛巳卜，大，貞，**卣**自<sup>上</sup>甲元示三牛，二示二牛。十三月。《合集》25025(2기)

신사일에卜을 하고 大가 점을 쳤다. 上甲부터(示癸까지 여섯 명의) 元示 조상들께 세 마리의 소를, (大乙과 大丁) 두 명의 조상들께 두 마리의 소를 바칠까요?

26) David N. Keightley, *op.cit.*, p.19.

도 이 분야에 관심을 둔 학자들에게 통과의례적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글은 董作賓의 연구 성과 가운데 周祭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지금까지 이 글이 유지했던 관심사는 다름이 아니라 周祭는 과연 商代 後期 祀典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고찰하는 일이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周祭를 중심으로 진행된 商代 後期 祀典 체계의 변혁은 전반적으로 제사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제사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과정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다든지 제사 일정을 미리 정해놓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제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통제의 효율성을 높히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제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여 앞으로 벌어질 과정이나 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을 타개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제사의 성격을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원래 제사가 점복의 대상으로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점을 통해 결정해야 했던 상황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점복은 제사 실행 여부에 관하여 신의 의지를 확인하는 장치로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킨다. 그러므로 제사에 대한 통제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는 점복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려는 경향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제사 대상의 범위를 上甲 이하 조상들로 제한했던 周祭의 의도를 분석하면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上甲 이하 조상들은 廟號에 天干이 포함된 존재들이라는 점은 앞서 밝힌 바 있다. 周祭에서 배제된 자연신 및 高祖로 지칭되는 조상들은 공교롭게도 天干이 포함된 廟號가 없다. 周祭에서 이들이 배제된 배경은 上甲 이하의 조상들보다 조상신으로서의 성격이 엷기 때문인데, 그러한 차별성은 廟號 天干에 그대로 반영된다. 여기서 이러한 廟號 天干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周祭에서 조상신의 祭日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사 점복의 목적과 의도에 비추어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사 점복에서 祭日은 다른 항목처럼 점을 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廟號 天干日로 祭日이 고정된다는 사실은 제사의 전 과정에서 점복의 비중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sup>27)</sup> 더욱이 周祭의 祭日은 60干支로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점복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있다. 周祭에서 祭日은 더 이상 점복이 필요 없는 독립적 영역에 속한 것이다.

周祭의 제도화를 통해서 추진되었던 제사 대상의 축소 대책은 祭日을 선결 시행하는 규정과 긴밀히 얽히면서 제사의 진행 과정에서 점복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음이 밝혀졌다. 제사의 영역에서 점복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경향은 제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놓은 규정들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周祭 점복에서 희생의 종류나 양, 희생 방법 등에 관한 占問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제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격화된 제사 규정이 미리 마련되어 있었으리라 추정할 바 있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제사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 문제도 점복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27) 사실 廟號 天干日에 제사를 지내는 관행이 周祭의 성립과 함께 비로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周祭가 없었던 1기 때도 이러한 관행이 존재했었다. 다음 자료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1] 壬辰卜, (出), 貞翌癸巳<sup>出</sup>于母癸, 三<sup>宰</sup>羌五. 《合集》 365(1기)

임진일에卜을 하고 (出)이 짐을 쳤다. 다음 날 계사일에 母癸에게 세 마리의 우리에서 기른 양과 羌人 다섯 명을 바칠까요?

[2] 甲辰卜, 貞, 貞翌乙巳告上甲. 《合集》 428(1기)

갑진일에卜을 하고 짐을 쳤다. 上甲에 고하는 날을 다음날 을사일로 할까요?

[3] 乙卯卜, 貞, 來乙亥<sup>酉</sup>下乙, 十伐又五, 卯十<sup>宰</sup>. 二旬又一日乙亥不<sup>彫</sup>. 雨. 五月. 《合集》 903正(1기)

을묘일에卜을 하고 殷이 짐을 쳤다. 다음 을해일에 下乙계 15명의 사람을 베고, 10마리의 우리 양을 배를 갈라서 酉 제사를 바칠까요? 21일째 되는 을해일에 酉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비가 왔다. 오월.

위의 세 인용문 중 [2]를 제외하고 모두 廟號 天干日이 祭日이다. 갑골문에서 조상제사는 간혹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廟號 天干日과 일치한다. 張秉權에 따르면 구과와 신과 모두 廟號 天干日을 祭日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張秉權, 앞의 논문, 372. 이렇게 보면 일반 조상제사와 周祭 모두 廟號 天干日을 祭日로 채택한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일반 조상제사에서는 廟號 天干日이 자동적으로 祭日이 되는 것은 아니다. 廟號 天干日이라도 항상 점복을 통해서 적합성 여부를 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廟號 天干日이 점복의 영향력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은 분명하다. 점복의 영향을 축소시키려는 경향은 周祭가 출현하기 전부터 배태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商代 最後期에 나타난 合祭의 퇴조 현상도 이러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제사의 영역에서 점차 점복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合祭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비추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合祭는 廟號 天干에 따라 祭日을 결정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신들을 함께 致祭할 경우 祭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점복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商代는 갑골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점복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점복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지보다는 신들의 의지가 더 중요했고, 이러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周祭의 성립은 블랙홀 같은 商代 점복의 구심력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발로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周祭는 정형화되고 규칙화된 제사였다.<sup>28)</sup> 미리 짜인 일정에 따라 고정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제사였다. 이러한 제사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과정에 관한 규정집으로서 祀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商代 점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周祭의 원심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周祭는 점복을 통해 발휘되는 신적 힘을 인간의 통제 하에 놓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점복의 불확실성은 周祭가 지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으로 대체된다. 조상을 비롯한 신들은 周祭의 등장과 더불어 인간들과 소통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능력의 상실을 겪는다. 왜냐하면 신들은 인간이 만든 자동 제사 시스템에 무의지적으로 참여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周祭의 제도화는 항상 점복을 통해 신들의 의지를 파악할 책임을 지닌 담당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왕을 비롯한 점복 전문가들은 점복 해독 능력을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점복의 향방이 지닌 불투명성은 기존 권력의 기반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28) 劉源은 周祭를 구체적인 목적 없이 진행되는 제사라 부른다. 周祭의 이러한 성격은 엄격한 제도화 경향과 밀접하게 결부된다. 그에 따르면 武丁과 祖庚 시기의 조상숭배는 종교성이 풍부했지만, 周祭는 형식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성격을 상실하였다. 劉源, 《商周祭禮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4, 46쪽.

권력이 출현하는 원천이기도 했다. 商王은 신들의 의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권력의 정당성을 잃을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 周祭는 변덕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신들의 의지를 인간의 손으로 통제하려는 제도적 고안물이었다.<sup>29)</sup> 점복의 자리에 신을 쫓아내고 대신 들어앉은 周祭는 제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신들의 의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관심의 초점은 정형화된 周祭의 제반 규정들을 익히고 이를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하는 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종전까지의 제사 관념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의 자리를 지향했다면 周祭는 목적 자체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 6. 결론

본고는 商代 後期 周祭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祀典 체계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수렴하면 다음과 같다. 周祭가 商代 後期에 시행되었던 주요 제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董作賓의 심층적 분류가 낳은 결과였다. 董作賓이 시행한 심층적 분류는 갑골문을 시간의 변화에 입각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갑골문에 시간의 변수를 개입시킨 결과로서 董作賓은 商代 祭祀 문화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변천을 겪었음을 밝힌 바 있다. 周祭는 갑골문을 다섯 시기로 구분할 경우 2기에 출현하여 5기에 가서 완전한 체제를 갖춘 조상제사로서 商代 祭祀

29) 퓨에트는 商代 희생제의의 특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변형의 모티브를 강조한다. 商代 희생제의는 신들로부터 호의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거행된 것이 아니라, 변덕스럽고 강력한 힘을 지닌 신들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행해진다. 이러한 변형의 핵심은 인간화이다. 즉 불규칙적이고 무정형적인 신들을 인간들이 만든 위계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통제 가능한 존재로 변형시키는 것이 희생제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희생제의 이론은 周祭와 상관없이 개진된 것이지만 본고의 주장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Michael J. Puett, *To Become a god: Cosmology, Sacrifice, and Self-Divinization in Early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p.50-54.

문화가 지닌 역사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고는 周祭의 특징을 제사 대상의 축소, 祭日의 선결 시행, 제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事前 매뉴얼 확보, 습祭의 퇴조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는 周祭가 등장하기 이전의 조상 제사가 일일이 占卜을 통해서 세부 사항을 결정하던 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본고는 周祭가 가져온 祀典 체계의 변화에 담긴 의미를 신적 의지를 인간의 통제력 하에 놓으려는 시도로 해석하였다. 占卜을 통해 제사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던 종전의 방식이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적 의지의 과잉을 표출한 것이라면, 占卜의 필요성을 축소시킨 周祭는 이 양자의 관계가 점차 역전되어 가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본 것이다. 갑골문 5기이자 商代 최후기에 해당하는 帝乙, 帝辛 시기 절정에 달했던 周祭의 사회 문화적 함의가 周代를 비롯한 중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 參考文獻 >

- 郭沫若 主編, 《甲骨文合集》, 上海: 中華書局, 1978-1982.
- 島邦男, 《殷墟卜辭研究》, 弘前: 中國學研究會, 1958.
- 董作賓, <甲骨文斷代研究例>,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外編第一種: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上冊, 1933.
- 董作賓, 《甲骨學六十年》, 이형구 옮김, 《갑골학 60년》, 서울: 민음사, 1993.
- 董作賓, <爲書道全集詳論卜辭時期之區分>, 宋鎮豪, 段志洪 主編, 《甲骨文獻集成》第十五冊, 四川大學出版社, 2001.
- 董作賓, 《殷曆譜 上編》,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45.
- 劉源, 《商周祭禮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常玉芝, 《商代周祭制度》,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 常玉芝, 《商代宗教祭祀》,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10.
- 松丸道雄, 高鳴謙一 編, 《甲骨文字字釋綜覽》,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93.
- 王宇信·楊升男, 《甲骨學一百年》, 하영삼 옮김, 《갑골학 일백 년 1, 2, 5》, 서울: 소명출판사, 2011.

張秉權, <殷代的祭祀與巫術>, 宋鎮豪, 段志洪 主編, 《甲骨文獻集成》第三十冊, 四川大學出版社, 2001.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2.

陳夢家, <古文字中之商周祭祀>, 《燕京學報》第十九期, 1936.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北京: 科學出版社, 1956.

許進雄, 《殷卜辭中五種祭祀的研究》,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院, 1968

Keightley, David N., "The Making of the Ancestors: Late Shang Religion and Its Legacy." In John Lagerwey, ed., *Religion and Chinese Society* Vol. 1.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Puett, Michael J., *To Become a god: Cosmology, Sacrifice, and Self-Divinization in Early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research what means the appearance of the ritual according to the pre-decisive manual in the religious history of ancient China. The Shang Dynasty originally decided whether the various rituals would be committed or not by divination. But the establishment of the ancestor worship called the cyclical ritual(周祭) brought on the moment those practises were modified wholly. The cyclical ritual involved five rituals, rong (彤), yi(翌), ji(祭), zai(𩇑), xie(𩇑). It was committed repetitively in the prescribed rule. The cyclical ritual indicates that there was a standard manual on recipient, time, oblation, method etc. of ritual. In this essay the meaning of the cyclical ritual was considered to make the divine capacity be under the control of human. The establishment of the cyclical ritual minimalized the burden of Shang kings given the responsibility of grasping the divine will through divination.

Key Words: Dong Zuo Bin, oracle bone inscriptions, deep classification, five periods, old and new school, cyclical ritual, five rituals, temple name, heaven stem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12. 31.	2016. 1. 22.	2016. 1. 23.	2016. 2. 15.	2016. 2. 29.